

# 책임기 생활화의 조용한 실천운동

## 충북 청주의 '의사 독서운동가' 이은애씨

해마다 이즈음이면 모습을 드러내는 '독서 운동'의 성과를 선불리 판단해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아직도 책임기가 '운동' 차원에서 권장돼야 할 만큼 '독서의 생활화'라는 구호가 절실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진단에 근거한다면, 책임기에 관한 한 지역적 차별성의 문제는 논의로 자리하게 되고, 개개인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가 우선적인 과제로 떠오른다.

소아과의사 이은애씨(37)의 경우는 청주지역에서 조용한 독서운동을 펴고 있다는 점 말고도,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그 자신 책임기를 중요한 일상의 한부분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 독서의 생활화의 모범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은애씨의 그동안의 활동을 '독서 운동가'로서의 그것으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본인의 고사도 있지만, 오히려 추상적인 독서운동이 바람직한 형태로 구체화된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크게 눈에 띄는 대외활동에 치중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직업이 갖는 특수성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이뤄진 일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또한 그의 직업과 무관하지 않다.

5년전 가족과 함께 청주로 옮겨온 뒤 자신의 개인병원을 열고 그야말로 '생업'에 충실했던 이은애씨는 찾아오는 어린이들을 진료하면서 현재의 과열된 교육풍토가 그들에게 심각한 억압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절감했다고 한다. 어린이들에게도 일종의 정신질환이 적잖이 존재한다는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어린이교육에 관한 책을 틈틈이 찾아 읽게 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적절한 책을 선정해 자녀들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부모들에게 권하게 된 것이 그의 독서운동의 시작인 셈이다.

"치료방법의 하나로 부모들에게 어린이교육 관계 책들을 권하게 됐다"는 이은애씨는 그러나, 단순한 권유에 머물지 않고 직접 책을 구입해 나눠주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좋은 책을 내가 놓칠까 봐" 찾아 읽던 것이 나중에는 "그 책을 남이 모를까봐 안타까워" 소개하고 손에 쥐어주게 까지 됐다. 그리고 차츰 그 도서목록도 「썸머힐」이나 「페다고지」에서 「목민심서」 「모스크바 25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게 됐다.

"찾아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교육학관계 책들이 너무 적고, 나와 있는 책들도 번역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천재만들기'를 위한 책들을 찾는 부모들에게 그들의 과잉교육열을 최고의 목적으로 지적하는 책들을 권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 이은애씨가 말하는 그간의 고충이다. 더구나 그 자신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치열했던 입시경쟁을 치뤄야 했던 세대로서 "서른이 넘어서야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이고 보면, 현재의 사회환경 속에서 독서운동이 설득력을 갖기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그의 말은 귀기울일 만하다.

또 한가지 어려웠던 점은 필요한 책을 제때에 구해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서점



이 참고서나 잡지, 베스트셀러 위주의 영서서점이고 대형서점이라고 해도 전문서적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골서점에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아원이나 소규모 지역도서관 등에 책을 보내는 것도 이은애씨의 중요한 관심사다. 청주의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 정기적으로 갖는 강연회의 강연료는 그대로 그곳의 도서관에 기증할 도서구입비로 쓰인다. 이동도서관이나 독서모임, 자신처럼 책임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나 정보를 틈틈이 수집해놓았다가 책을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이은애씨의 꿈꿨던 사전작업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중요하다. 사보에서부터 잡지, 일간지 등 되도록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자료는 스크랩을 해놓는다. 그리고 기증처를 찾는 일과 함께 그곳의 성격에 맞는 책들을 선정하기 위

한 작업도 필요하다. 고전에서 신간을 망라한 좋은 도서목록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게다가 자신이 그 책들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썬두리 시간은 모두 책임기에 바쳐진다.

"거창하게 독서운동가라고 불리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 보다는 독서광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그는 많은 책을 읽는다. 같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과외의' 일에 든든한 협력자인 남편과 "책을 미리 사놓고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빨리 자라길 손꼽아 기다렸"고 지금은 자기 못지 않은 '열렬한 독서가'가 된 아들 덕에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책만 읽는 데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이은애씨가 읽어내는 책들은 그의 주변사람들에게 권해지는 도서목록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는 쓰게 될 그의 저서를 위한 자산이 될 것이라 한다. — 정소연 기자

# 기획 편집 에서 인쇄 제본 까지

## —망설이고 계십니까?

- 문장력에 자신이 없어서...
- 소요되는 제작비가 부담이 되어서...
- 원고를 맡길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민의 편집인을 만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현역 문인의 원고 다듬기와 편집, 꼼꼼한 교정은 첫번째 만족을 드릴 것이며, 적은 제작비용으로 원하시는 이상의 출판물을 제작하였다는 기쁨과 만족을 두번째 드릴 것입니다.

회보, 자서전, 전기 집필, 일반 단행본, 전문 서적 등 출판에 관한 일이라면 먼저 목민의 심부름꾼을 만나 보십시오.

출판 기획 **牧民**  
전화 823-4175